

신의 뜻과 하늘을 배신한 인간의 의지 중 누가 셀까



정창욱의 열사일침
烈士一鍼

길위의학교
공정의힘 단장

더운 여름날 9살 개구쟁이들이 서로 힘 자랑하며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서로 지지 않으려 밀치고 당긴다. 아이들 손등과 팔엔 손톱으로 할린 자국이 선명하다. 어떤 아이는 피까지 흐르고 쓰라린 고통에 인상을 쓰거나 우는 아이도 있었다. 장난이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유독 한 아이만큼은 심하게 할퀴어 피가 흐르는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를 용감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다치고 굳힌 몸으로 집으로 향했다.

고통을 느끼지 않던 용감한 아이는 예루살렘 왕국의 왕자인 보두앵 4세였다. 이상하게 여긴 왕자의 가정교사 볼드윈은 보두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문둥병으로 결론 냈다. 왕국은 발각 뒤집혔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팔다리가 변형되고 얼굴이 해골처럼 변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의 모습은 괴물처럼 변해 갔다. 그럼에도 그는 16세에 당당히 왕이 되었다. 해골처럼 변한 그의 외모는 가면으로 가리고

용기있는 결단과 신의를 지키며 십자군전쟁을 이끌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노린 이슬람의 위대한 술탄인 '살라딘'의 2만 6000명 이슬람군을 맞아 고작 580명의 군대로 대항한 '몽기사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16세에 불과한 보두앵 4세는 전 국민의 추앙을 받게 된다.

1000년 전, 불치병에 걸린 보두앵 4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을 수 없었으며 오래 살 기망도 없었다. 결국 24세에 근육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몽개지며 걷지도 못하고 두 눈까지 멀게 된 채 신의 품에 안긴다. 그러나 그는 국가를 통치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센병이란 병 뒤에 숨은 적이 없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지만 국가와 백성을 지키려는 정신과 자유·관대한신의를 묵숨처럼 지키고 적군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했던 보두앵 4세의 품격과 용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왕국을 가장 평화롭고 존중받는 국가로 거듭나게 했다. 심지어 악명높은 이슬람의 살라딘조차도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목이 잘린 머라·각종 장기와 뇌·절단된 사지나 몸통 등 인간을 부위별로 잘라 포르말린 용액에 넣은 122개의 유리병이 어두침침한 지하실 선반에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 사이로 땀줄이 발목을 감고 머리카락까지 자란 태아의 사체가 담긴 14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 핏빛 유리병들이 섬뜩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100년 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병(나병·문둥병)에 걸린 나병환자들의 장기를 추출해 전시하고 출산을 막기 위해 본보기로 추출한 태아들을 포르말린 유리병에 보관해 전시했다. 어쩌다 태어난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구타로 사망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한 일본 총독부와 한국 정부는 국가란 이름으로 나병환자들의 인권을 잔혹하게 유린했다.

사슴처럼 긴 목·섬섬옥수 같은 가녀린 손가락과 손목...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

는 여인에게 한 아녀자가 쭈뼛거리며 작은 대나무 소반을 내밀었다. 손에 감긴 봉대는 흘러내리는 피고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대나무 소반엔 사과 몇 알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드릴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군요. 용서해 주세요.” 아녀자는 더러운 봉대를 감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여인은 두르고 있던 앞치마로 아녀자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리고 사과를 집어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 선물은 처음 받아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창밖과 부엌 저 편 복도에 빼곡하게 서 있던 흉칙한 모습의 수백 명이 흐느

껴 울었다. 코가 무너져 내린 사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 얼굴에 징그러운 돌기가 수없이 돋은 사람, 피고름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나환자촌 소록도는 울음 바다가 되었다. 여인은 나환자들의 치료를 약속하고 인권을 지켜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1년 뒤인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세광의 총에 맞아 사망한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노예 청년은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문둥병에 걸리자 불치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젊은 청년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청년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노예 청년은 과거 목마를 때 그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준 사람인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한 바가지의 물을 주지만 병사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가 끌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처형되자 어머니와 동생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리고 노예 청년은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하늘의 뜻으로 내린다는 한센병은 파천황 같은 인간의 의지로 완치가 가능해졌다. 파천황(痲天荒)은 아직 천지가 열리지 않은 혼돈 상태를 깨뜨리고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대중·노

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재명과의 명대전을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이낙연 신당의 운명은 어찌 될까.

“상식적인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386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한동훈. 그리고 내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환자촌이 있었던 안동시 출신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가 우선”이란 정치 소신을 가진 조선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한동훈. 신의 뜻으로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들과 동행할 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행한 파천황의 인간 의지는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1000년 전 예루살렘 왕국 보두앵 4세의 의지와 관대함이 십자군전쟁의 와중에도 평화를 지켰고, 50년 전 육영수 여사의 사랑이 소록도에 희망을 선물했다면 2000년 전 한 청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듯 설령 그것이 하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2024년 청룡(淸龍)의 해를 맞이한 갑진년 대한민국, 과연 누가 천지가 열리지 않은 것과 같은 혼돈 상태를 깨뜨리고 세상을 열 것인가. 과연 누가 먼저 하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선한 의지로 파천황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운동권 청산 위해 폭로하는 4가지 진실



김대호 칼럼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운동권’은 1980년대를 풍미한 비제도권 정치 세력의 야명(兇名)이다. 나이 든 운동권은 재야(在野)라 불리었다.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 조선 중기 이후 정치를 좌지우지한 사림(士林) 혹은 산림(山林)에 가 닿는다.

운동권은 민주·자유·정의·민족·진보·노동 등을 기치로, 자신들이 독재 정권이라 규정된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와 싸운 사람들을 말한다. 당연히 반독재가 아니라 반국가 투쟁을 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운동권의 시각적 이미지는 붉은 머리띠·태극기·화염병·최후탄이다. 긍정적 가치는 소신·용기·강단·희생·헌신 등이고, 부정적 가치는 투쟁·타도·쟁취·독선·종북 주사시대착오 등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화석(化石) 운동

권은 386컴퓨터처럼 한때는 시대를 앞서 갔으나 지금은 박물관이나 고물상에 보내야 할 유물이다. 운동권은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쯤 사라진 단이었다. 성찰을 아는 운동권 상당수는 1987년 6월 항쟁과 12월 대통령 선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순환, 한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동권식 전망(88올림픽 후 대대적인 공안 탄압·외채 망국·독점 강화·종속 심화 등)의 빚나감, 동유럽 민주화와 소련 해체, 결정적으로 소련·중국·북한 사회의 민낯을 보고 경악했다. 그래서 1990년을 전후하여 재야와 운동권은 자신들이 세계와 인간기업과 기술·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너무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혁명을 꿈꾸던 열혈 운동권 학생·청년들은 제각기 소질·적성·전공을 살려 대학원 진학·회사 입사·고시 응시·창업 등을 통해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운동권은 질풍노도의 시대·이념적 편향·열정의 과잉·견문의 부족·전문 지식의 부재 등과 같이 엮인 단이었다. 그런데 망각의 지층 깊숙이 파묻혀 있던 사어(死語)를 부활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늦어도 2000년대 초반쯤 사라졌어야 할 운동권이 이렇게 엄청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패악질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개인적으로 운동권의 사상 이념적 후진성과 위험성을 깨달은 것은 1990년대 말이라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집단적 성찰 반성과 업그레이드를 부르짖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한 386의 사상 혁명’(2004)과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를 집필해 출간했다.

운동권 정치는 운동권식 정치(이념과 행태)와 운동권 출신 정치인(사람)의 결합이다. 본질은 운동권식 정치다. 이는 대학 시절 열혈 운동권이 아니었던 문재인·조국·이재명·김남국·개발들이 386·운동권의 사교방식과 행동 양식을 전형적으로 체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운동권에 의한 운동권을 위한·운동권의 정치는 운동권 출신들이 노화되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본질이자 유전자인 운동권식 정치는 정치·역사·문화·이념·교육 등 다방면의 조직적 체계적 청산 투쟁이 없으면 수백년을 갈 지도 모른다. 청산을 위해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진실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첫째, 지난 30~40년 동안 운동권과 민주당이 팔아먹던 가치·이념과 비전·정책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 문재인·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다. 훨씬 부패·저질화·좌익화·종북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민주당의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운동권이 문재

인·한명숙과 이재명을 통해 민주당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핵심 당원과 열성 지지층도 지역업자 중심 호남향우회에서 공공 부문과 규제 산업의 화이트칼라 운동권 대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노총은 전태일 정신과 전혀 상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노조는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강자 약탈(지대 추구의 무기로서, 좋은 일자리 분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운동권식 정치는 외교·안보와 경제·민생에 문외한이면서도 자신은 군자임을 내세우며 상대는 소인으로써 몰아 쳐살하고, 자기 일족들을 공산·유공자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조선의 위선 정치의 계승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주도하는 저질 운동권 정치는 역사와 현실을 항일 민주·친일 독재(검찰 독재), 선악, 정의·불의, 개혁·적폐, 민족·외세, 노동·자본, 환경·생명·문·이윤, 가계·기업, 약자·강자, 진보·보수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기에 부정과 파괴·분열과 대립·쟁취와 타도·위법과 때범·독선과 위선·거짓과 조작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의 패악으로 특권을 주로 거론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패·타락·건달·행각·위선·독선·가짜뉴스·거두절미 막달 시비(인론 테러) 등도 심각하다. 가장 큰 패악은 안보·경제·민생·통합·미래세대를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철학과 가치·이념과 정책이다.

맛있는 우리말 200

스카이데일리 연재

다양한 예문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맛집 탐방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는 맛있는 우리말 모음집

I. 달콤한 우리말	II. 얼큰한 우리말	III. 새콤한 우리말	IV. 씹살한 우리말
V. 칼칼한 우리말	VI. 매콤한 사자성어	VII. 개운한 우리말	VIII. 씹쓸한 들은말

우리말에 담긴 헛갈리는 표현, 동음이의어, 띄어쓰기의 함정, 사자성어,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등 다양한 우리말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총 8장으로 구분하였다. 한 페이지에 500자 내외의 글로 담아 어느 쪽을 펼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 박재역 | 글로벌콘텐츠

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200
다양한 예문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맛집 탐방
박재역 지음
글로벌콘텐츠